

별이 빛나는 밤

사회학과 18학번

사학과 복수전공, 국어국문학과, 미술사학과 부전공

소연은 또다시 머리가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A3 사이즈의 거대한 시험지를 보자 정신이 혼미해지며 하얗고 적막한 방에 에워싸인 것 같았다. 시험지 한 면은 범위 전체를 촘촘하게 가로지르는 객관식 문제를 열댓 개 적어야 했고, 나머지 한 면은 고대 그리스 미술의 특징을 대표적 작품을 중심으로 시기의 변화에 따라 적어 내려가야 했다. 소연은 짧은 시간을 주고 바뀌는 PPT 슬라이드 상의 문제를 보고, 줄 밖에 그어져 있지 않은 빈 시험지에 문제 번호와 답을 적어야 했다.

이번엔 길게 보여주고, 다음 번에 한 번 더 보여줄 땐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 웬만큼은 다 적으셔야 합니다.

교수는 특유의 우아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다시 보여줄 때는 짧게 보여줄 것이라고 재촉했다. 학생들은 가차 없이 넘어가는 슬라이드 때문에 연필을 서걱이며 답을 적기 바빴다. 소연은 '딸깍' 소리를 내고 넘어가는 문제를 벌써 몇 개째 놓쳐 버렸다. 소연은 그쯤 되자 시험지의 그어진 줄이 자신의 목을 옥죄이는 느낌이 들어, 줄에 매달렸다가 갓 풀려난 사람처럼 킁킁거리며 헛구역질을 해댔다. 입에 묶은 침이 고이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벌렁거려서 손이 벌벌 떨려 왔다. 그 와중에도 슬라이드는 넘어갔다.

딸깍

클릭을 했는데도 화면은 오래도록 로딩 중이었다. 소연은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느낌에, 시선은 화면에 고정된 채로 책상에 놓인 물컵을 들어 벌컥벌컥 물을 마셔 넘겼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자 화면이 오랜 로딩을 마치고 본 화면으로 바뀌었다. 소연의 가늘게 뜬 눈이 재빨리 가로 줄을 가로질러 다다른 곳엔 선명한 붉은 글씨로 '불가'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소연은 승인여부란에 적힌 단호한 통보를 받아들자, 다시 눈을 질끈 감고 참고 있던 숨을 몰아 쉬며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불행을 실제로 맞닥뜨리는 기분은 준비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학기 가계곤란 장학금 기준인 성적 2.5를 못 맞춰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는 심정으로 소득 분위 장학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1년 중 대부분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버지가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소득 분위 산정에서 밀리기 마련이었다. 학교가 소득 분위 산정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계곤란 장학금이었는데, 그 장학금을 2.5라는 성적 기준도 못 맞춰서 놓쳤으니 할 말이 없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들어온 명문대학이었다. 자기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꼴 안 보게 하겠다고 어머니는 무리인 줄을 알면서도, 소연이 합격한 학교 중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

대 대신 가장 좋은 사립대에 입학시켰다. 못 배워서 이 꼴을 겪는 것이라며, 너는 더 배워서 고운 대접 받으면서 살라고. 어머니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를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일 첫날 득달같이 납부했다. 하지만 소연은 어머니가 그토록 꿈꿨던 대학을 마냥 즐길 수가 없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한 끼에 8천 원이 넘는 밥을 먹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밥 먹고 타피오카 펄이 동동 뜬 버블 티를 마신다며 또 5천 원 가량을 지불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이어트를 핑계로 음료를 번번이 사양하는 것도 면구스러웠다. 어느새 소연은 친구들 무리에서 슬쩍 빠져 아무도 맛있어서 안 먹는다는 학식을 먹으려 한산한 학생식당으로 가거나, 그조차도 부담스러운 날이면 1+1 행사를 하는 삼각 김밥을 사 먹기 일쑤였다.

이것들, 한 개 값이 1200원이면 거의 몇 년 전 가격 두 배잖아. 1+1을 하면 뭐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소연은 저녁까지 먹을 삼각 김밥을 손에 집었다. 옆 쪽에서는 불닭볶음면에 스트링 치즈를 넣네 마네, 불닭엔 참치마요 삼각 김밥이 제격이네 하는 말을 하면서 점심거리를 고르는 다른 학생들이 있었다. 스트링 치즈 1100원, 불닭볶음면 1500원, 참치마요 삼각김밥 1000원, 다음 날 속 아프지 말아야 한다면 위벽 코팅 삼아 1000원짜리 두유까지, 도합 5천 원에 가까운 돈을 편의점 한 끼에 지불하는 다른 학생을 보며 소연은 편의점에서 먹는 한 끼도 같은 한 끼가 아니라는 생각에 울적해졌다.

2400원이에요.

네.

그는 음료도, 다른 간식도 사지 않고 삼각김밥 4개를 계산대에 올렸다. 하루 걸러 거의 매일 들리는 소연의 얼굴을 알바가 외울까 싶어 고개도 들지 않고 카드만 건넸다 받았다. 계산을 마친 삼각김밥 2개를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는데, 조잡하게 싼 김 사이로 자꾸 내용물이 튀어나와 입가에 묻었다. 소연은 편의점 앞 의자에 앉기도 전에 김밥을 입에 욱여 넣고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입가에 묻은 자국을 지웠다. 자국을 거칠게 문질러 닦고 있는데, 불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을 닦는 손끝에 뜨거운 눈물이 스치자, 소연은 상처가 난 것을 알고서야 아픔을 느끼는 사람처럼 뒤늦게 서러움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소연도 오늘은 점심에 떡볶이를 먹을지, 파스타를 먹을지, 아니면 후문에 있는 칼국수에 물만두를 먹을지 수업시간부터 친구들과 설레어 들쭉거리고 싶었다. 타피오카 펄은 개구리 알이 동동 떠 있는 것 같이 흥쾌하지만, 달큰하고 부드러운 타로 버블티도 한 번만 맘 편히 꼭 들이켜고 싶었다. 밥을 먹으며 시험 끝나고 놀 계획도 세우고, 과제를 많이 내는 교수 흥도 같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처럼 기분이 울적한 날엔 아무 것도 안하고 방에 누워 슬픈 음악을 들으며 그냥 하루 멈춰 있고 싶었다. 그러나 소연은 그럴 수 없었다. 힘들게 선정된 가계곤란 장학금은 겨우 학비만 충당되는 수준이었고, 그 외에 생활비는 소연이 알바로 충당해야 했다. 집에는 아직 고등학교도 가지 않은 동생과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둘을 재우고 먹이고, 거기에 자기 몸뚱이까지 먹여 살리느라 버거워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었다. 소연은 어머니 생각에 이르자, 화장실 거울에 비친 물기 어린 얼룩들을 서둘러 지우고 알바를 가려고 버스에 탔다. 소연에게는 잠시 멈춰 있을 시간도, 이불에 얼굴을 묻고 맘 편히 목 놓아 울 여유도 없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눈물이 곧 넘칠 댐처럼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

다.

딸깍.

자, 17번 서술형까지 모두 문제 보여드렸습니다. 20분 후인 1시 30분부터 다시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때부터는 한 문제당 2-3초 정도만 주고 확실히 넘어갈 겁니다. 만약 중간에 퇴실하시고 싶다면 문제 다시 보여드리기 이전에 나가주세요. 중간에 나가는 소리가 시험 보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므로 30분부터 시험 종료인 2시까지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교수가 다시 한 번 안내를 하며 소연 곁을 스쳐 갔다. 그때까지 객관식 15개 중에 적은 답은 2개 남짓이었다. 하지만 소연이 불성실해서 남들은 빼곡히 적어 내려가는 답을 못 적은 것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지속되는 주 5일 알바에 몸이 축축 처져서 수업에서 즐기 일췌였고, 점심 값을 아껴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수업을 들어도 따라가기 힘든 건 매한가지였다. 일반고에서 내신 범위 열심히 외우고 수능 최저를 겨우 맞춰서 대학에 온 소연은, 수시 종합으로 들어와 3년 내내 독서와 토론에 단련된 다른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자신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피피티를 척척 만들고,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토론하여 발표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연은 학교가 점점 버거움을 느꼈다. 마치 이미 너무 배가 불러서 조금만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한 입만 더 먹으라고 누군가 밀어 넣는 것처럼, 그렇게 소연은 학교에서의 매일이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느낌이었다. 궁핍한 티를 내기 싫어 친구들에게서 조용히 멀어지다 보니 전화번호부를 넘겨도 위로해 달라고 기댈 친구 한 명이 없었다. 턱 끝까지 소연을 쫓아오는 학업의 부담감과 삶의 무게는 어느새 일상이 된 우울증이 되어 그녀를 잠식해 왔다. 소연을 덮친 우울의 장막은 안 그래도 버거운 학교 공부를 더 힘들게 했다. 글을 이해하는데 전보다 갑절의 시간이 더 걸리고, 열심히 외워도 조금만 지나면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눈을 하얗게 멀게 하는 적막한 섬광이었다.

소연은 우울감을 질끈 동여매고,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오늘 시험을 공부했다. 이번 시험에서 적어도 C+¹를 맞지 않으면 학사 경고 기준인 학점 평균 2.5를 못 맞추게 되기 때문이다. 소연은 이미 학교²를 맞아, 이번에 또 맞으면 학교를 재 입학하기 위해 100만원 가량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과는 달리, 우울증으로 인해 떨어진 기억력은 야속하게도 소연이 머릿속에서 외우고 새겼던 글씨들을 지워버렸다. 소연은 15개 남짓 되는 단답형 중 겨우 2개만을, 그마저도 확신이 없이 겨우 적었다. 뒷장에 서술형은 엄두도 나지 않았다. 서울에서 잘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학점 기준을 못 맞춰 학사경고를 맞고 본가에 내려왔을 때 어머니가 느낄 심정이 짐작도 되지 않았다. 소연은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머리가 아득해지고 손이 바들바들 떨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 때, 소연의 오른쪽 대각선에 앉아있던 학생이 책상 밑으로 굴러간 샤프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빼곡히 책상이 들어 찬 교실에서 학생이 몸을 비키자 답 네 다섯개가 보였다. 사실 고개 자체를

¹ 4.3 만점 기준 C+ 학점은 2.3점이다.

² 학교: 학사경고의 줄임말

소셜 상에서 2.5학점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맞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학사경고 1회는 부모님 상담, 2회는 제적이며, 재 입학을 위해서는 100만원을 학교 측에 내야 한다.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걸 소연도 알았다. 하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리고 눈을 흘기하면 답이 보이자 이성은 저 답을 베껴야 한다고, 지금 답을 베끼지 않으면 C+은 커녕 D도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건 확실히 이성의 명령이었다. 소연은 고개는 최대한 조금만 돌리고, 안간힘을 다해 비스듬히 보이는 답을 답안지에 받아 적었다. 이 정도면 기말을 비슷하게 친다고 가정했을 때 C+는 가능할 터였다. 교수는 A, B대는 장미칼이지만 C대부터는 웬만하면 C+에 수렴하게 준다는 소문이 있었다. 남들은 부정행위를 하면 떨어져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연은 뭐라도 적어서 채워놓은 답안지를 보자 그제야 막혔던 숨이 쉬어졌다.

딩동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라면 물을 었었는데 사캠³ 알람음이 울렸다. 미리보기로 알림창을 보니 “김소연 학생, ‘서양미술의 이해’ 한지민입니다...” 라는 글씨가 보였다. 수업 자료가 업로드 됐다는 알림인 줄 알고, 어떤 교수가 시험기간에 벌써 다음 수업 자료를 올렸나 싶었던 소연은 자신한테 온 교수의 개인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꼈다. 정신 사납게 보글거리는 물이 거슬러 불을 끈 뒤, 마음을 가다듬고 메시지 창을 열어보았다.

김소연 학생, ‘서양미술의 이해’ 한지민입니다.

오늘 학생이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메시지 했어요. 대각선 앞에 앉은 학생이 고개를 숙였을 때, 그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소연 학생이 급히 답을 옮겨 적는 것을 봤다는 다른 학생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답안지 확인 결과, 그 학생의 답안에 틀린 부분까지 소연 학생의 답안과 일치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소연 학생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반박이든, 해명이든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겠죠. 내일 5시, 인문관 408호로 오세요.

회신 바랍니다.

- 한지민

감정적인 표현도, 에둘러 말하는 것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내는 것이 평소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의 지민 다운 메시지였다. 소연은 구구절절 반성하는 내용의 답장을 적어 보내려다가, 이내 다 지워버리고 “네, 내일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드림” 이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다. 자신이 적은 반성문이 군더더기 없는 교수의 메시지에 비해 너무 구질구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똑똑_

네, 들어오세요.

³ 사캠: 사이버캠퍼스의 줄임말.

교수자가 각종 수업 자료를 업로드하고,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 과제함을 통해 과제 제출을 한다. 이 외에도 출석, 성적 확인, 메세지 주고 받기 기능 등 학습에 필요한 여러 기능이 들어있다.

약속시간에 맞춰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니 지민이 차를 내리다 말고 소연을 맞았다. 진 초록색 원 피스를 입은 지민의 모습이 르누아르의 그림에서 갓 튀어나온 여인 같았다.

앉아요.

지민이 찻잔을 소연 앞에 내려 놓으며 말했다. 몇 초 동안 지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소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소연은 지민의 눈빛을 마주 보는 것이 두려워 찻잔에 인 파문에 일렁이는 자신의 얼굴만 내려다 보고 있을 뿐이었다. 차의 향기는 찻잔에 그려진 꽃을 꼭 닮은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마셔요. 입을 떼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아니까, 마시고 시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씹쓸하면서도 기분 좋은 향을 남기는 차의 뒷맛이 깔끔했다. 소연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던 맥심커피는 마실 때는 좋아도 뒷맛은 참 텅텅했는데, 지민이 내준 차는 우아하고 깔끔한 그녀처럼 마지막 잔향까지 단정했다.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묻는 지민의 얼굴을 소연은 힘겹게 마주 보았다. 소연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지민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걱정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상황만 보면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질책하는 교수라고는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로 지민의 표정은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소연은 심연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민의 진실한 눈빛에 어떤 변명을 할 의욕도 잃고 말았다. 저 당당하고 우아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자신이 더 비참하고 구차해질 것 같았다.

아니요, 알고 계신 바가 모두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행위를 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소연 학생은 카페인 음료까지 마시다가며 수업을 참 열심히 들었는데... 평소 태도대로라면 굳이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요.

...

수치심에 절로 고개가 떨거졌다. 100명이 넘게 듣는 수업이었다. 소연은 그 중 한 명의 학생이었고, 심지어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런 소연을 지민이 섬세한 관심을 담아 정확히 기억했다는 사실에 소연은 자신의 행동이 더더욱 사무치게 후회스러웠다. 평소 좋아하는 지민의 수업이 있는 날이면 덜 추레해 보이려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수업에 나섰다. 하지만 그렇게 본인의 옷가지를 정돈해서 수업에 임하면서도, 소연은 지민이 수많은 학생 중에 조용히 수업만 듣고 사라지는 자신을 기억해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테니 답해 줄래요? 시험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던 말 못할 사정이 있었나요? 사실 소연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평소 소연 학생의 태도를 고려하면 답안을 너무 못 적은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그래요.

지민은 웅송그러진 소연의 어깨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실, 나는 부정행위에 대해 학생이 교수와 제자 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어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쳤을 때, 학생이 완벽한 답을 적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직하게 나의 가르침에 대한 응답을 해주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학생을 마주해야 할 때, 학생도 난감하겠지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픔니다. 학생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학생이 나와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말이에요. 무엇인지 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연은 또박또박 자신의 정수리에 꽃히는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시종일관 맑고 분명한 어조가 감정에 의해 흐트러지는 작은 틈에서, 소연은 지민이 말하는 존엄성이니 이해니 하는 말들이 그저 교수의 겉멋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에 자신도 진실된 응답을 하고 싶었다. 비록 학생으로서 지민의 가르침에 응답하지는 못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숨김없이 응답함으로써 최소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었다. 소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에 적응할 새도 없이 알바를 전전했던 일, 알바에 지쳐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저 멀리 앞서 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던 일, 그리고 그 모든 일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생긴 기억력 감퇴와 같은 증상이 다시 악순환을 만들었던 일, 최선을 다했지만 빈 시험지 앞에 멎어 버린 기억력 때문에 학교만은 피하고자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일련의 과정을 다 털어놓았다. 쪽팔리는 일이라 생각하여 항상 쭈뼛 숨겨왔는데, 신기하게도 진심을 말하는 지민 앞에 변명하면서 한 번 더 진심을 배신하기 싫다는 마음이 소연으로 하여금 굳게 닫혀 있던 입을 열게 했다. 지민은 소연이 말하며 감정이 격해져 울음을 터뜨릴 때, 자기 편에 있는 휴지 하나를 뽑아 건넬 뿐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소연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답이 보였을 때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는 피하겠거니 싶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 입학하기 위해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사실 죄책감보다는 후련했습니다.

소연씨 많이 힘들었네요. 그런데도 참 곳곳이 버텼네요.

내내 침묵을 지키며 눈빛으로 따라오던 지민이 일말의 질책 대신 온정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연은 지민의 목소리에서 공감할 빙자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의 동감에서 우러난 공감을 느꼈다. 어느새 '소연학생'에서 '소연씨'로 바뀐 호칭도 뭔가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민이 소연을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연에게 지민은 평생을 어려운 일 없이 곱게 대접받고 지냈을 것 같은 교수였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민의 마음이 소연에게 부드럽게

맞닿아 왔다. 소연은 지민에게 대답 대신 차 한 모금을 더 마시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지민은 소연이 차를 음미할 여유를 잠시 주더니 짐짓 목소리 톤을 밝히며 물었다.

소연씨, 내가 이번 부정행위가 학사경고로 이어지게 하지 않도록 해 줄 테니, 내가 내는 추가과제를 해 볼래요?

네? 그게 무슨...?

학칙 상 원래 부정행위를 하는 즉시 F 처리였어요.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교수 자율평가가 도입되어, C+, 즉 자동으로 재수강을 해야 하는 학점 대부터 교수가 죄질에 따라 다르게 점수를 줄 수 있지요. 나는 소연씨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한 것은 소연씨를 돌보지 못했던 나를 포함한 주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기말까지 내가 내주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말에 성실히 임한다면 C+ 학점을 주고 싶어요. 현재 학칙 상 부정행위를 한 소연씨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학점입니다.

소연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어리둥절하여 멀뚱히 지민을 바라보았다. 애초에 소연은 부정행위를 들킨 자신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F학점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에 공감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지민의 권한 내에서 최대의 학점을 주어 학사경고를 막아주겠다는... 서울에 올라와 오랫동안 호의니, 친절이니 하는 것들을 받아보지 못한 소연은 지민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얼떨떨했다. 지민은 말을 잊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소연을 장난스럽게 재촉했다.

뭐예요, 그 표정은. 내 제안 좋아요, 싫어요.

선생님, 그러면... 추가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추가 과제는 나랑 기말 범위에 있는 예술작품 전시회를 몇 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수업에서 느끼거든요. 이미 미술작품이 좋아서 온 학생들, 내가 설명하는 미술작품을 일부라도 이미 본 적이 있는 학생들에겐 내 설명이 단순히 암기거리가 아니라는걸. 작품 속의 주인공과 그리고 작품을 그린 화가와 동화되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하지만 미술과 가깝지 않았던 친구들에겐 내 수업이 교양인데 암기 폭탄이라 전공보다 더 힘든 수업이죠. 나는 소연씨가 그림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내주고 싶어요. 외우고 시험 끝나면 사라질 지식이 아니라, 소연씨 삶에 그림이 어떤 희망과 위로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

예정에 없던 추가 과제니까, 시간은 내가 소연씨 시간에 최대한 맞춰게요. 요즘 학생들 다 알바에 개인 일정에 바쁘는데 교수가 무조건 편한 시간에 나오라고 하면 그건 월권이지. 미술사 교수가 얻는 혜택이랄 게 별 건 없는데, 그래도 때 되면 좋은 전시 보러 오라고 초대권을 좀 받아요. 마침 초대권이 남는데 나랑 같이 보러 가요. 어때요, 내 제안?

소연이 선뜻 대답을 못 하자, 지민이 소연이 내심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먼저 운을 띄웠다. 지민은 소연이 생계 때문에 알바를 빠질 수 없다는 말을 그녀가 먼저 꺼내게 두지 않았다. 그리고 소연에게 전시회 풋값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지민은 소연이 어려운 형편이

지만, 마냥 교수한테 폐 끼치고 싶어하지 않을 마음을 고려해서 먼저 초대권을 받았다고 능청까지 부렸다. 소연은 마치 친구가 영화 보러 가자고 조르는 것 같이 살포시 고개를 기울이며 제안을 하는 지민에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입을 열면 눈물 젖은 목소리가 새어 나올까 봐서 였다. 지민은 소연의 대답을 보고 눈이 사라지게 웃었다. 소리 없는 미소였지만, 그 밝은 미소가 연구실에 고요히 비추는 해사한 햇살과 닮아있었다.

내 번호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데 소연씨만 특별히 줄게요. 다음에 만나요

소연은 지민이 번호를 적어준 메모를 쥐고 그녀의 연구실을 나왔다. 연구실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안이 빙빙했는데, 연구실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지민이 소연에게 내보인 진심 어린 애정이 그녀의 마음을 뭉근하게 덤겼다.

그 일이 있는 지 며칠 후, 수업 전에 지민은 소연에게 문자로 이 수업 끝나고 시간이 괜찮으면 전시회에 가자고 했다. 소연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지민은 소연에게 수업이 끝난 후 교수 연구실 지하 주차장에서 보자는 답장을 보내고 곧바로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에서 지민의 태도는 평소와 변함이 없었다. 소연에게 너의 처지를 다 이해한다는 식의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 없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골고루 마주 보며 강의력으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소연은 강의를 들으며 새삼 저렇게 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자신 같은 학생 한 명을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소연이 수업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니 이미 지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은 소연을 미리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은 차에 태우고, 부드럽게 악셀을 밟아 미술관으로 향했다.

지민이 데려온 미술관은 '빈센트 반 고흐 전'이 한창이었다. 빈센트의 유명한 작품 여러 점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은 전시라고 MC가 흥분하여 방송에서 떠드는 것을 소연도 언뜻 들은 적이 있었다. 미술관은 폐장 시간이 2시간 앞으로 가까워 와서인지, 전시를 보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유유히 나오고 있었다. 소연은 지민을 따라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공들여 준비한 컬렉션이라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 몇 점의 그림을 지나자 초반부터 고흐의 '해바라기'가 걸려 있었다. 지민은 그림 앞에 소연과 나란히 서서 그녀 쪽으로 고개만 살짝 돌려 물었다.

어때요?

네...?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 시간에 이 작품을 배우긴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길 기대하고 묻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봐요. 그냥 이 방에, 이 그림과 소연씨만 고요함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림이 소연씨한테 걸어오는 말이 있을 거예요. 무슨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림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소연씨는 그림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편하게 얘기해봐요.

지민은 말을 마치고, 다시 고개를 그림 쪽으로 돌려 소연의 옆에서 조용히 멈춰 있었다. 소연이 지민을 슬쩍 보니 강의할 때 절제되고 흔들림 없이 당당한 눈빛과는 또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민이 그림을 바라보는 모습에는 조금 흥분에 일렁이는, 무언가를 희망하는 듯하지만 조금 애상의 빛이 서린 듯도 한 모습, 창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소녀의 모습이 얼핏 비쳤다. 지민은 그 짧은 순간에 그림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 했다. 소연은 지민의 눈빛에서 실마리를 얻어 자신도 '해바라기'를 잠시 바라보았다. 노란색의 향연이 소연에게도 어떤 감정의 동요를 일으켰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연은 어딘가 마음 한쪽이 아려 오는 것을 느꼈다. 잠시간 그림을 응시하던 소연은 잠시 눈을 감고 감정을 갈무리한 후, 천천히 입을 뗐다.

... 슬퍼요.

슬프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밝은 색만 사용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연두색. 그런데 이상하게 슬퍼요. 뭔가 마음속 깊이 슬픔을 간직한 사람이, 상대방의 괜찮냐는 물음에... 자신의 사연을 다 털어놓고 이해 받는 것보단 미소 지어서 대답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밝게 웃고 있지만 속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

소연은 지민이 답이 없어 옆을 돌아보니, 지민이 자신을 보고 활짝 웃고 있었다. 지민의 미소에 민망하여 소연은 얼른 다시 그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연씨 내가 뭘 가르쳐 줄 필요가 없네요.

네?

소연씨는 이미 그림이란 대화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연씨가 처음에 그림에 대한 감상으로 "슬프다"라고 답했을 때 좀 놀랐어요. 밝은 노란색의 광휘에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읽어내는 것은 흔치 않은 감상이니까요.

제가 너무 뜬금없는 감상을...

아니요, 오히려 소연씨의 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고흐는 평생 동안 지독한 우울과 고독 속에서 싸웠던 사람이예요. 그의 독특하고 유별난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의지할 곳은 동생 테오 뿐이었죠. 게다가 그는 성직자에서 화가로 진로를 바꾸고 삶을 꾸려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가장 비싼 값에 팔리는 그림을 그린 천재 화가로 숭앙 받지만,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거든요. 테오가 주는 돈으로 물감을 사고 자신의 생활도 해결하면서 그는 아마도 동생한테 계속 부채감을 느꼈을 거예요.

소연은 설명을 들으며 자신과 닮아있는 고흐의 모습을 발견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우울 속에 침잠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이 고흐의 삶과 겹쳐졌다. 또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소연은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에 큰 몸을 한껏 웅크려 울고 있는 고흐가 마음 속에 절로 그려졌다. 안쓰러운 마음에 많이 힘들지 않냐고 등이라도 한번 쓸어주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사실 소연 자신에게 오랫동안 참 열심히도 참아왔다고 위로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문을 닫아 걸고 우울 속에 혼자 잠겨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정상
의 범주 안에서 자신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희망했고, 그림을 통해 자신이 발견한 아름다
움을 말하며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자 발버둥 쳤던 사람이죠.

소연은 그림에 눈을 떼지 않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 가는 지민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 보았다.

이 그림은 고흐가 아를에서 고갱과 함께 집을 얻어 작업하길 바라며 그린 그림이에요. 고갱을 위
해 작은 집을 빌려 집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 '해바라기' 그림으로 벽을 장식했죠. 하지만 만
년 지 몇 주 만에 예술적 견해로 크게 다투고 고갱이 그를 떠나 버렸고, 고흐는 상실감에 괴로워 하
며 더욱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그가 친구를 만나 함께 감정을 나누기를 얼마나 고대해 왔는
지를 짐작할 수 있죠.

지민의 설명이 진행됨에 따라, 소연은 노란색 꽃에 뒤얹힌 감정으로 다시 눈길을 옮겼다.

고흐는 예술적 견해를 나눌 수 있는 벗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설렘을 담아 밝은 빛으로 그
림을 채웠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히도 외로웠던 고흐의 내면이, 그리고 누군가의 온기가 자신을
감싸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어떤 슬픔을 읽어낸
소연씨의 느낌은 고흐의 내면과 조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 'Vincent'에 고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하
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소연씨가 고흐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네요.

소연은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이 더욱 애뜻하게 느껴졌다.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외로워했던
고흐가, 일생 처음으로 동생이 아닌 친구를 만들 생각에 들뜨며 셀레아⁴했던 감정이 임파스토
(Impasto) 기법⁵으로 표현된 붓질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냥 남들처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호탕하게 웃어 짓힐 친구,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막막할 때 말없이 빈 술잔을 채워주는 친
구 하나를 바랐을 뿐인데, 결국 그마저 고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소연의 가슴이
저릿하게 당겨왔다. 지민은 소연을 이끌어 옆의 방에 있는 '아몬드 나무' 앞으로 데려 갔다. 하늘
색 색채와 대조된 흰 꽃잎이 새봄을 맞아 수줍게 피어있는 것 같았다.

고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했듯 동생 테오를 제외하면 그가 살면서 받은 사랑의
기억은 거의 없을 텐데도, 고흐는 정말 매번 순수하게 사랑을 주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그림은 테오의 아들, 그러니까 빈센트의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린 그림이
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우울증으로 자살할 정도로 당시 빈센트의 상태는 심
각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조카의 탄생을 기뻐하며 추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아
몬드 나무를 그리며 탄생의 축복을 전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⁴ 셀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는 의미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함축한다

⁵ 임파스토(Impasto) 기법: 물감을 두텁고 거칠게 표현하여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기법.

이화진, 이화여자대학교 '표현, 예술, 그리고 시대정신' 강의 -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2019.

...

소연이 멍멍하게 지민의 설명을 듣고 있자, 지민이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그래서 그를 우울과 고독 속에 죽어간 비운의 화가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차가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테오가 형의 이름을 따서 조카의 이름을 '빈센트'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조카가 자라서 반 고흐 미술관을 지어줬어요. 빈센트(조카)도 그를 사랑의 흔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했던 그의 바람대로, 우리는 그의 온기를 기억해야 해요.

소연과 지민은 전시회의 나머지 그림도 찬찬히 살펴보았다. 지민은 소연이 멈춰 있고 싶을 때 같이 멈추고, 중요한 그림에는 약간의 설명을 해주면서 소연의 호흡에 맞춰 감상해 주었다. 그리고 소연이 서투른 방식으로라도 무엇을 느꼈는지, 감정이 어떠한지 계속 표출할 수 있도록 지민은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모든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어느새, 전시회의 마지막 방에 당도하자 어두운 방 안에 단 두 개의 그림만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림은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과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그림이 있는 곳을 조명이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었는데, 너무 밝지 않도록 섬세하게 조절된 명도가 감상자의 감정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 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는 그림이 마치 두 사람이 고흐가 그린 풍경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한참을 그림 앞에 서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깼던 것은 지민이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네?

나는 우울하면 세상 만사가 귀찮거든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예쁜 옷을 봐도 사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해도 응어리진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의 풍경을 둘러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이 회색 빛인데. 그냥 집에 들어와서 방에 불 끄고 눕는 거지.

소연은 지민의 말을 가만가만 듣고 있었다. 구김살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지민도 혼자 우울해 멈춰 있는 시간이 있구나, 축 쳐지고 애써 미소짓기조차 힘든 날이 있구나 싶었다. 지민이 말을 이었다.

고흐는 일생 동안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계속 가로막히고 상처받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지,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순수하게 기뻐하고, 또 그림을 통해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는지... 나는 그게 고흐의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림이 고흐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었던 걸까요?

그렇겠죠.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고흐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순간에도 고흐는 지난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기,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사이프러

스 나무가 거대하게 자리해 있고, 파란 밤하늘에 달무리와 별이 춤추듯 소용돌이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친 밤하늘의 울동감이 고흐의 불안한 내면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생 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도 완전히 고통을 잊을 수는 없었던 거군요...

맞아요. 옆에 '아름의 별이 빛나는 밤'과 함께 볼래요? 이 그림의 일반적 해석은 임파스토 기법을 통해 흔들리는 강물에 별빛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기법이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올려다 봤을 때, 아름의 강가에 비친 별빛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지 않았을까요?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면, 밖이 어른거리게 보이잖아요. 번지고 휘몰아치는 빛 무리는 그가 가슴속 차오르는 슬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 기억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말했다고 생각해요. 생이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은 처절한 슬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그렇게 마지막 그림까지 보고, 전시회의 폐장과 함께 미술관을 나왔다. 지민은 전시가 끝나고 출출하니 저녁을 먹자며 뇨끼가 유명한 레스토랑에 소연을 데려갔다. 소연이 메뉴에 익숙하지 않자, 지민이 여기서 유명한 것을 추천해 줄까 물어왔다. 곧이어 뇨끼와 파스타, 그리고 같이 먹을 스테이크샐러드가 나왔다. 고소한 치즈 향과 향긋한 허브 향이 어우러져 고픈 배를 자극했다.

우와, 이런 음식 처음 봐요.

소연은 뇨끼라는 음식을 처음 봤다. 소연에게 양식은 학교 급식에서 싸구려 토마토 소스를 얹은 파스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소연은 맛있다고 먹었다. 그러자 지민은 소연이 민망하지 않도록 스푼과 포크를 놓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면 대신 수제비 반죽 넣은 거지, 소스 얹은 파스타랑 똑같아요. 그래도 난 쫄쫄해서 뇨끼가 더 당기더라고요. 어서 들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도란도란 이야기가 오갔고, 대화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깔린 클래식 음악이 둘의 주위를 편안하게 감쌌다. 지민은 살갑게 대화를 걸면서도 단 한 번도 소연이 불편해할 만한 주제를 꺼내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이나, 학교생활 적응 문제에 대해서 소연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조심스럽게 답할 뿐, 절대로 먼저 그 쪽으로 주제를 꺼내지 않고 주로 그날 보았던 전시와 수업할 때의 얘기를 꺼냈다. 수업시간에 진도 많이 나가면 애들이 싫어하는 거 자기도 아는데 다 나갈 거라고, 내가 선생인데 어찌겠냐고 짓궂게 장난을 치는 지민의 미소가 사랑스러웠다.

집에 돌아온 소연은 이불을 덮고 곰곰이 그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다. 지민이 보낸 문자부터, 전시회장에서 있었던 일, 저녁을 먹은 일까지. 얼마나 오랜만에 걱정 없이 보낸 하루였는지 모른다. 소연은 그동안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 잠자리에 드는 때면, 몇 시간 안 되는 잠자는 시간 만이라도 힘든 기억을 잊어보려고 눈을 질끈 감고 자라를 세다가 잠이 들었다. 서양에선 양(sheep)이 잠을 잔다(sleep)는 동사와 비슷해서 양을 세라고 하는 거니까, 한국 기준으로 자라를 세야 효

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철석같이 지켰다. 그렇게 자라를 세지 않으면 그날 있었던 힘든 기억이 소연을 잠자는 순간까지 놓아주지 않아 결국 악몽을 꾸다가 잠을 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다. 소연은 그 날의 기억, 사소하게는 나눴던 대화, 지민의 눈빛, 식사를 할 때 들렸던 작은 음악소리까지도 마음 속에 담다가 잠이 들었다.

그날 이후 소연의 일과는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알바에 지쳐 떡이 되어 집에 들어왔고, 다음 날 수업에서 졸음을 쫓으며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버거웠다. 매일 알바를 해도 여전히 삼각김밥이 지겨워 학식을 사 먹는 것 외에 소연이 부릴 수 있는 사치는 없었다. 그러나 소연의 하루 하루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일주일에 두 번 지민의 수업이 들은 전날 밤에는 작은 기대를 안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한테도 수업시간에 먼저 몇 번 말을 걸고는 했다.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러 가는 지하철 창 밖으로 흘러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작은 행복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 세는 자라의 수가 100마리 이하로 줄어들었다. 항상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악몽에서 깨어 어슴푸레한 방 안에선 눈을 깜빡이며 아침을 기다리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알람을 두 어 번 맞춰야 깨어날 정도로 잠을 푹 자게 되었다.

(노래) 서로 몰래 다했던 나와 그대~ 나를 지켜 주었던 마지막 그 약속에~
다신 울지 않을래~ 모진 시련 앞에도, 멀리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그댈 볼 수 있죠.⁶

평소에 맞춰 놓은 알람 소리가 아닌 벨 소리가 소연의 잠을 깨웠다. 시간을 보니 아직 알람이 울리기도 전인 오전 7시 40분이었다. 다름 아닌 동생 수연의 전화였다. 소연은 졸린 눈을 비비다 말고 동생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니 수연이 아무 말도 못 하고 계속 언니를 부르며 울기만 했다.

수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말해봐

우는 수연을 겨우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요 며칠 비가 많이 내려 할머니의 산책을 못 시켜 드렸는데,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에 할머니가 집 창문을 다 열고 집안의 수도랑 수도는 다 열어 두었다는 것이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한 할머니는 비 오는 날에도 꼭 밖을 나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걸핏하면 넘어지는 데다가 돌발행동도 잦아 비 오는 날 산책은 늘 힘들었다. 도저히 우산을 쓰고 할머니를 부축할 수 없어 며칠 참으시라고 어르고 달랬더니 그 사이에 할머니가 기어이 사달을 낸 것이다. 수연과 어머니가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이미 반 지하 방은 밖에서 들어온 빗물과 할머니가 열어놓은 수도에서 나온 물로 범람을 하고 있었다. 물을 다 빼냈지만 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어 가산을 모두 버려야 한단다. 할머니는 다치지 않고 무사했다는데, 소연은 그 소식이 그렇게 알미울 수가 없었다. 집에는 코빠기도 비치지 않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을 낳은 사람이었다. 정신이 멀쩡할 때는 그렇게 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키더니,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서도 어머니 옆에 붙어서 등골을 살뜰히 빼먹던 할머니였다. 결국에는 정신이 나가서 집까지 폭삭 말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⁶ 애니메이션 '달빛천사' OST - Myself 일부

소연은 정말 찾아가서 할머니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와중에 수연에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 왜 이제야 말하냐고 물으니, 들려오는 답이 소연의 속을 더 사정없이 할퀴었다.

엄마가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언니가 이걸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서울서 잘 공부하고 있는 언니 걱정시키면 안 된다고. 언니 학기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안 되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는다고. 근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나 이 말 할 사람 언니 밖에 없어서 전화했어.

말을 마치고 숨을 쉴 새도 없이 울음을 토해내는 수연의 목소리가 소연의 귓전을 아프게 울려댔다. 수연은 아침부터 물건을 내다 버리러 나온 길이라고 했다. 비에 젖은 것들을 집에 오래 놔두면 균이 번식해서 위험하다고, 이 와중에 병까지 걸리면 정말 큰 일이니까 부지런을 떠느라 그런 것이었다. 공 들여 한 수업 필기도, 정든 물건도 다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릴 물건을 더 갖고 나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수연 나름대로는 참다 못해서 언니한테 전화한 것이었다. 소연은 당장 기차표를 끊어 집에 내려가려다 말고, 결석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자동으로 학사 경고가 확정된다는 사실이 떠올라 수업이 끝난 후 8시쯤에 출발하는 기차를 예약했다. 학교에 가서 말 그대로 수업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소연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얼마 없는 가산을 다 버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염려해 이런 힘든 상황조차 나누려 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 소연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그리고 어머니 말마따나, 실제로 자신이 이 소식을 접하고 본가에 내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젖은 가산을 치우고 집 청소를 돕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소연은 건딜 수 없었다. 그마저도 학사 경고와 제적 때문에 당장 집에 내려가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한심했다.

소연은 수업이 끝나고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다가 중간에 갈아타는 지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원효대교로 향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걱정을 얹지 않겠다며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려 한 어머니의 애기를 듣자 자신이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 솔직한 심정으로,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보다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가혹해서 그만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이제 조금 삶이 덜 지겨워지나 싶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또 뺨을 매섭게 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소연은 이제 지긋지긋했다. 22년 동안 살아오면서 소연이 생을 붙잡고 싶은 즐거운 기억이 별로 없었다. 앞으로의 남은 긴 생이 또한 그러하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가루가 되어 흩어지면 인생 내내 끈질기게 따라오던 불행도 더 이상 소연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었다. 소연은 버스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다리 한가운대를 향해 걸어갔다.

다리 한가운데 서서 난간 밑을 내려다보자 강물은 요 며칠 내린 비로 한껏 불어나 있었다. 이 상황에서 뛰어내리면 수색작업을 한다고 해도 소연의 숨이 끊기기 전에 구조될 염려는 없어 보였다. 난간을 그러쥐자 철의 냉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순간 소연은 차가운 물속에서 한 마디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갈 자신이 생각나 겁이 덜컥 났다. 버스를 타고 다리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이번에는말로 이 불행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다리 위에 서니 두려움에 다리가 벌벌 떨려왔다. 소연은 다시 결심을 굳히려고 두 눈을 질끈 감고 난간을 밟고 올라섰다. 마음을 굳히고 몸을 아래로 던지려는 데, 순간 자신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검은 강물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소연은 자신이 이 지난하고 고통스

러웠던 삶에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강물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눈에 담겠다는 생각으로 질끈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다.

눈을 뜨자 한강과 양 옆의 마천루들이 눈에 들어왔다. 강물에 비친 마천루의 불빛이 소연의 눈에 맺힌 눈물 때문에 어울져 춤추고 있었다. 강가에는 밤이 되어 운항을 멈춘 작은 dinghy 요트와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밝고 노란 그믐달이 소용돌이치는 달무리 가운데서 강물에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빛과 어둠, 강물과 주변의 풍경이 눈가에 고인 눈물에 의해 굴절되어 번져 보였다. 순간 소연은 얼마 전 전시회에서 본 고흐의 두 그림, '별이 빛나는 밤',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과 자신이 보고 있는 풍경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 고흐, 1889년작.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빈센트 반 고흐, 1888년 작.

부둣가에 닻을 내린 배들, 강물에 스민 상점가의 노란 불빛, 흔들리는 불빛을 총총히 강물에 드리운 별들, 그리고 밝게 소용돌이치던 달무리가 눈앞의 정경과 겹쳐졌다. 어두운 전시관 속에서 소연이 마주했던 '별이 빛나는 밤'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소연은 강물에 부서지는 달빛과 눈물에 의해 번지고 얼룩진 정경이 참 평온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흐가 매일 자신을 무릎 꿇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밤이 되면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은... 그 고요한 빛이 건네는 위로가 그가 삶을 부여잡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소연도 이해할 수 있었다. 소연은 문득 반도 차오르지 못한 그믐달이 22년밖에 살지 않은 자신과 닮아 있다고 느꼈다. 비록 아직 여리고 작지만, 어두운 곳 없이 밝고 선명한 달이 소연에게 곳곳하게 지금까지 잘 버텨 왔노라고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소연은 저 달이 만월이 되어 세상의 구석진 곳, 그늘지고 음습한 곳까지 환하게 비추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자신도 달이 차오르듯이 매일 조금씩 빛과 사랑을 더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소연은 살아야겠다고, 내일도 저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소연은 난간에서 내려왔다.

소연은 학기가 끝나고 성적평가까지 모두 마무리된 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붙잡아 준 또 한 명의 은인 지민에게 메일을 남겼다. 학기 중에는 지민이 과제를 핑계로 자신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을 알면서도 숫기가 없어 이렇다 할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늦게라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밝은 빛을 드리워 준 사람이 바로 지민이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았다. 소연은 솔직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자살 직전까지 갔던 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각난 지민의 말, 그 말이 자신에게 일으킨 파문을 적어내려 갔다. 메일을 한 자 한 자 적어내려 가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다정한 것이었는지 느껴져, 몇 번이고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길고 긴 편지를 보냈다. 지민은 편지를 곧 읽었는데, 뜻밖에도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하지 않았다. 어떤 답장이라도 보내줄 것이라 생각했기에 조금 서운했지만 소연은 지민이 남겨준 기억을 음미하며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집 앞에 길쭉한 박스로 된 택배가 와 있었다. 무엇을 시킨 적이 없는 소연은 박스가 자기 것인지 보기 위해 운송장을 확인했더니 정말 자신에게 온 것이 맞았다. 그리고 발신인에는 놀랍게도 지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연은 반가운 이름을 보자마자 급하게 바투 자른 손톱을 세워 테이프를 북 찢었다. 박스 안에는 포장된 길다란 선물과 손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제자, 소연에게

소연씨, 우선 굳건하게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장 얼굴을 마주하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해외에 있어서 편지로 인사를 대신해요.

조금씩 밝음을 찾아가는 소연씨를 보며, 그저 잘 이겨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미처 다 살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소연씨의 삶에 (아주 작지만) 행복한 점을 찍을 수 있었다니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수많은 인연의 점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들이 모여 하나의 선이 되고, 또 선들은 하나의 형상을 만들지요. 물론 모든 점들이 항상 즐거운 것만도, 아픈 것만도 아니어요. 상처는 상처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한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연씨가 만들어 갈 아름다운 형상이 나는 너무 기대됩니다. 고흐의 그림이 소연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밝은 만월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소연씨의 모습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퍼지기를 바라요.

소연씨의 오늘과 매일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한지민 드림.

(추신: 소연씨의 삶에 비가 내리는 날에도, 늘 지금처럼 밝음과 맑음을 찾아 계속 걸어가 주기를, 그리고 그 비가 너무 거세고 매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산을 준비했어요.

Life isn't about waiting for the storm to pass, it is about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 -Vivian Greene)

포장을 풀자 나무 손잡이가 달린 고풍스러운 우산이 들어있었다. 우산은 소연이 언젠가 지민에게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스쳐 가듯이 말했던 보라색이었다. 우산을 펼치자 우산의 안쪽 면에 그림이 수 놓아져 있었다.

그림은 고흐가 절망의 늪 속에서도 사랑과 기쁨을 담았다던 '아몬드 나무'였다.